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모두가 공했는데 뭘 그렇게 아등바등 착을 두십니까

환생하신 조상에게 천도제가 의미 있나요

문)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는데 이미 다시 환생하신 조상님들에게도 그 천도제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답) 옛날에 어머니는 노망하시고 그 아들이 죽었더랍니다. 죽어서 그 어머니가 제사를 지내 주게끔 되어 있어서 제사를 해마다 그렇게 아드님을 위해서 지냈더랍니다. 근데 아들이 어느 정승의 집안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주 잘 사는데도 그 아들이 해마다 같은 날 꿈을 꾸면은 그 노인네가 그냥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면서 그 밥을 꼭 그렇게 해다가 상에 놓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쫓아서 그 집일 갔더랍니다. 그 집일 가서 그 노인네하고 같이 공양을 하고 나오고 나오고 했더랍니다. 그렇게 인제 지내기를 스무살이 넘도록 그렇게 꿈을 해마다 꾸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꿈을 꾸 대로 본다면 그 길이 아주 참 눈에 선해서 생시에 어느 날 자기가 찾아갔더랍니다. 꿈에 본 대로 고대로 찾아가니까 그날 정말 밥을 하고 계시더랍니다. 그해 밥을 해 놓는데 그 얘기를 그 노인네더러 물었더랍니다. 왜 오늘 꼭 이렇게 밥을 해 놓으시느냐고, 제가 꿈이면 이 날은 꼭 여기 와서 밥을 먹고 간다고 그랬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내 아들이 고생만 하고 죽었으니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좀 지혜로운 집에 태어나서 지혜롭게 살라고 내가 제사마다 잊지 않고 내 죽는 날까지는 꼭 하기 위해서 제사를 모셨노라고 하더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이렇게 나아가 먹도록 제사를 지내 줘서 내가 지혜로운 집에 태어나서, 정승에 판사집으로 태어나서 내 이렇게 사느냐.' 하고는 그냥 거기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부인이 인제 밥을 해 놓으신 것을 맛있게 나물에도 비벼서 자시고 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한없이 울었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나중에는 모셔다가 같이 살 았다고, 얼마 살지는 못했으나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사람이 아들이 죽거나 부모가 죽거나 이런다면은 그 원소는 꼭 납니다. 우리가 채소를 심어서 먹어도 씨앗은 꼭 남듯이, 꼭 그것은, 그 에너지는 남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즉 말하자면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면은 그 에너지는 에너지

통인데 에너지 주장자로 화한다. 에너지 주장자로 화하기 때문에 예전에 임제 스님 말씀이 이랬답니다. "네 주장자가 있다면, 그 마음공부를 해서 주장자로 화했다면 내가 내 주장자도 너에게 줄 것이로되 네 주장자가 화하지도 않았다면 내 주장자를 너한테 줄 게 아니라 네 주장자를 뺏어 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죽으면 아주 죽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이렇게 죽어서 없어지는 거지, 그 원소 자체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소 자체는 끝없이 가는 것이고 나의 영혼 그 자체가 일을 저지르면 모든 게 입력이 돼서 그것이 현실로 나오기 때문에 업이 있다, 업력

이 있다, 유전성이 있다, 영계성이 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계성을 제거하려면 이렇게 관하시라. 이렇게 한번 관하실 때마다 그건 무너진다. 그 업력은 무너지고 마니까 생각하기에 달렸다. 그 업도 없고 고도 없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린 거다.

우리 몸뚱이가 사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공생입니다. 그냥 우리 세포 하나의 생명도 모두 이것이 살아 있는 생명들이 다 같이 더불어 같이 하고 가지 어떻게 따로따로 하고 갑니까. 근데 그걸 같이 하고 가지 않기 때문에 병이 생기면 썩박질이 나서 땅이, 살이 굳는단 말입니다. 굳어서 이치가 벌어지고 또

에너지가 막혀서 백혈이 되고, 그냥 운동이 병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겁니다. 유전성이 없어지잖아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고, 영계성이 나오면 그렇게 문제가 아주 그냥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도 이만큼 벌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벌어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한생각의 공덕을 그냥 몽청 쌓아서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자식 등네에까지도 그게 미치지니까 말입니다. 모두가. 부모가 그렇게 덕을 지어 놓은 것이 자식등네에까지 내려간다. 그게 자식에까지 내려가서 그 자식에서 끊어지느냐,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원소는 항상 남아있듯이 이 은하계의 별성

이 그냥 떨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소는 남고 껍데기만 떨어져서, 떨어지면은 그게 그냥 아주 우리가 보지도 못하게 가루가 돼서 없어지죠. 그러나 그 원소는 남으니까 그것이 다시 옷을 입고 나오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은하계에도 별왕이 있듯이, 별왕이 있어서 그 옷을 입히듯이 그렇게 원소가 있기 때문에 옷을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돌아가신 부모라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자식이 죽었다고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연에 따라서 어떠한 나쁜 인연이 있다면 나쁜 인연으로 인해서 같이 한식구가 됩니다. 나쁜 식구가 그 인연이 됐으면은 서로 고생을 하죠, 서로 고통을 주고 서로 싸우고 모두 미워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일을 바깥에 나가서 벌여 놓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하는 것을 만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는 정신계의 자동적인 컴퓨터 같은 그런 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어저께도 과거고 작년도 과거고 그렇지만 과거에 잘한 거든지 잘못된 거든지 입력이 된단 말입니다. 입력이, 꼭 입력이 됩니다. 한마디를 잘못으면 잘한 대로 입력이 되고 못했으면 못한 대로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면 그 입력이 현실로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잘한 거는 잘한 것대로 나와서 좋은데, 못한 거는 못한 것대로 집안에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집안에 일이 생기니까 그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하시라 이런 겁니다. 어떠한 위급한 일이 앞에 나와서 생기겠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꿈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데 어쩌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그것을 '바로 너만아, 주인공 너만이 해결을 할 수가 있어.'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형성시켜서 태어나게 했으면, 화해서 태어나게 했으면 반드시 그건 주인공, 주인이 이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몸뚱이가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원소 자체가 바로 여러분 몸을 끌고 다닙니다. 정신계의 자기가 물질계의 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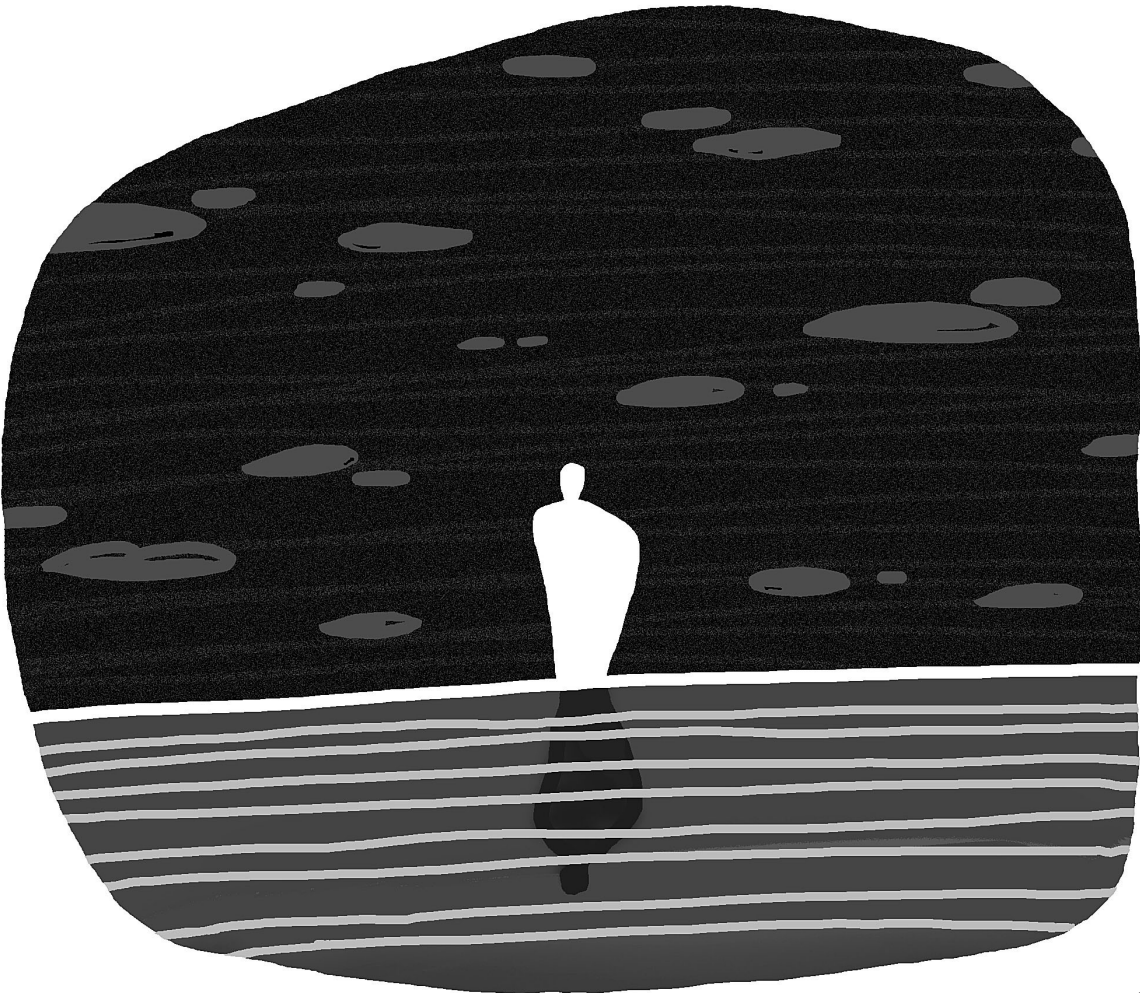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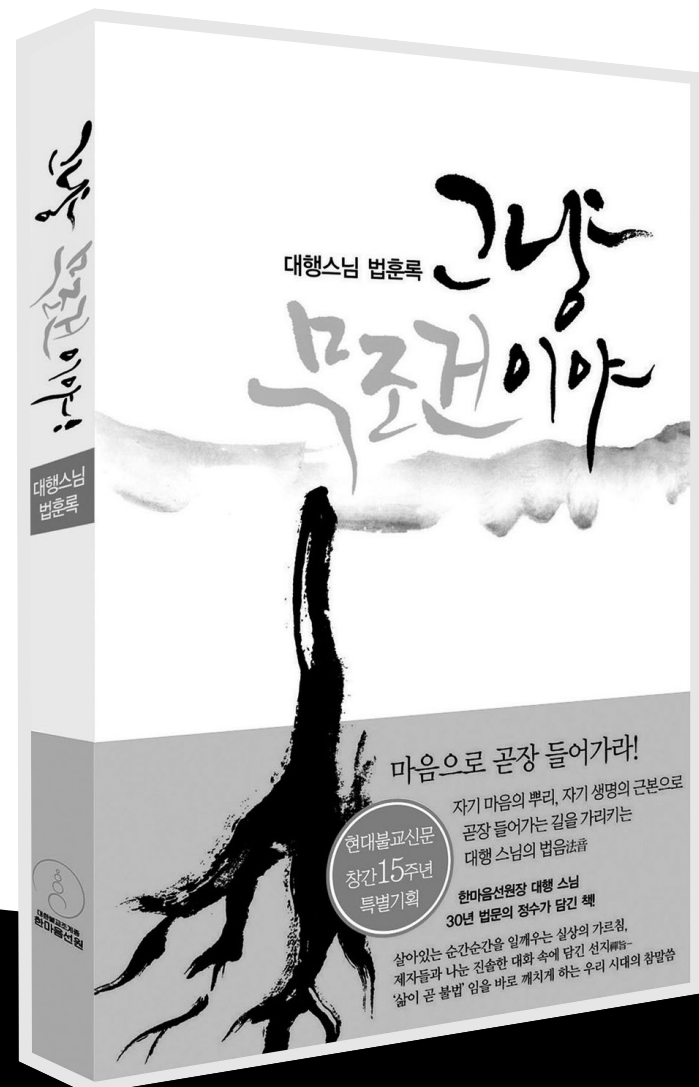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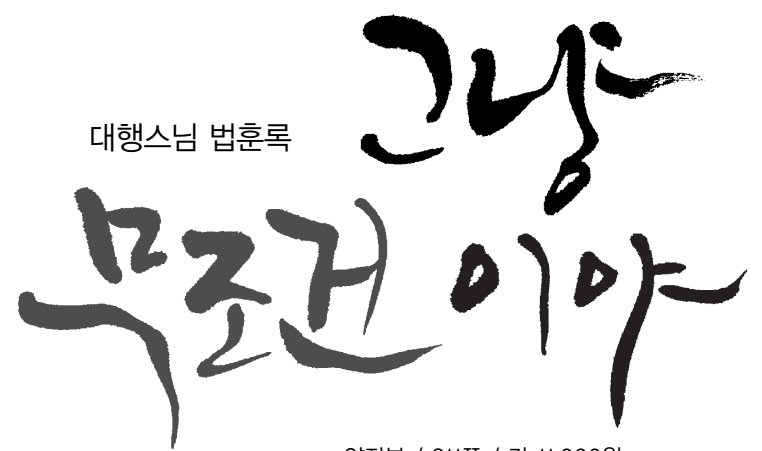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쪽 / 값 11,000원